

주머니 속의 이동 기지국 “Lory 개발”로 제2의 도약

시스템베이스(주)

‘시리얼통신’ 하면 ‘시스템베이스’가 떠오른다. 시스템베이스(대표 김명현, www.sysbas.com / 02-855-0501)는 1987년 설립 이후 시리얼통신을 주축으로 한 혁신적이고 편리한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국내 시리얼통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리얼통신 핵심 제품인 시리얼 카드, 컨버터, 디바이스 서버까지 시리얼통신에 관한 모든 제품군을 갖추는데 성공한 것. 지난 5월에는 무선 사물인터넷의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로라(LoRa) 저전력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한 ‘Lory’ 무선통신 모듈을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미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올 여름에는 한국무역협회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취재_이충훈 기자



무선 사물인터넷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로라(LoRa) 저전력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한 ‘Lory’ 무선통신 모듈을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다.

🎤 시스템베이스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시스템베이스는 1987년 창업 이래 시리얼통신 핵심 제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리얼 카드, 컨버터, 디바이스 서버까지 시리얼통신에 관한 모든 제품군을 갖추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국내 및 해외시장에 판매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시리얼통신 전문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시스템베이스의 제품은 통신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화력발전설비를 비롯하여 공장자동화, 검사장비, 교통관제, 주차관제, 자동제어, 금융자동화, 산업용 컴퓨터, 키오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 시스템베이스는 ‘Lory’를 개발하고 IoT 시대에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LoRa’는 반경 10km~20km까지 가능한 중거리 통신 기술을 자사 상품에 접목시켰고, 제품군과 응용 분야를 확대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016년에 주머니 속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 각광을 받고 있는 ‘Lory’라는 상품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올해는 후속 버전인



시스템베이스는 탁월한 아이템 선정과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르다.
'Lory'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측이 김명현 대표다.

'Lory2'를 개발 준비 중이다.

Lory2와 더불어 6개로 구성된 패밀리 제품(LoryNet)인 ioLory(LoRa to I/O 센서 노드), LoryGate(LoRa 게이트웨이), sLory(LoRa to Serial 컨버터), uLory(LoRa to USB 컨버터), rLory(Lory 중계기), Lory(LoRa to Bluetooth 컨버터)를 함께 출시하였다.

5월에 하이서울 우수상품 브랜드 어워드 4종(아이디어상품 : Lory, CS-LAN, 혁신브랜드 : CS-428/9AT-PRO2, mini2)이 선정되었다. 각각의 특징점을 소개해 달라?

Lory는 LoRa to Bluetooth 제품으로 히톡(Hitalk)이라 부르는 '히말라야 톡(HimalayaTalk)' 어플을 이용해 통신 음영 지역에서도 문자와 지도 전송을 가능하게 해준다.

2015년 10월에 출시된 'CS-LAN'은 산업용 RS232 to LAN 소형 컨버터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대량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 제품이며, 'CS-428/9AT-PRO2', 'CS-428/9AT

-mini2'는 산업용 RS232 to RS422/485 컨버터로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여 시스템베이스의 효자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 4월 100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여 올 여름 한국무역협회로부터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할 예정이다. 수상의 의미는?

가격 경쟁력 문제로 국내 대비 단가도 낮고, 해외 인증부터 기술 지원까지 여러 장애가 많아 100만불 수출의 벽을 넘기가 어려웠다. 수출 원년은 2001년이나 본격적으로 수출에 힘을 쏟은 2007부터 10년이 걸린 셈이다. 제작년부터 진행한 스페인 고객의 온도제어기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100만불 수출의 탑을 결정할 수 있었고, 5년 전에도 일본에서 제어장치 프로젝트가 있었으나 이쉽게(가격 문제로) 양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단품 영업에서 탈피한 개발 영업으로 기존고객의 잠재 수요를 사전 파악하고, 밀착 대응해서 개발부터 양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

시스템베이스의 비전, 사명, 가치관은
첫째, 세계 최고가 되자(비전),
둘째, 기술개발로 봉사하자(사명),
셋째,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자(가치관)

”



국내 시리얼통신 업계를 이끌고 있는 시스템베이스가 'Lory'로 제2의 도약을 꿈꾼다. 김명현 대표 우측의 개구리 형상을 한 시스템베이스의 CI가 눈에 들어오는데, 오늘도 Jump! Jump! 하며 힘차게 발돋움하는 임직원의 모습과 닮았다.

이와 같은 지난 2년의 노력이 올해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당사는 고객 맞춤형 개발이 가능한 창립 30년의 전문 메이커로서 국내외 시장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국내 최고의 시리얼통신 전문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시리얼통신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은 무엇인가?**

30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로 고객 맞춤, 개발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차별화다.

시리얼통신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당사는 시리얼통신 제품의 라인업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이 기반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갖기 어려운 핵심 부품(핵심 반도체)을 자체 개발 생산했기 때문에 IMF 때도 중국, 대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 **시리얼통신은 어떤 의미가 있나?**

시리얼통신(직렬 통신)은 컴퓨터가 1950년대에 출시되기 전에 '텔렉스(Telex)' 통신 기술의 기반이 되었고, 텔렉스(Telex)의 사양을 업그레이드했다.

IT 기기 간의 기본적인 통신 기술로서 대다수의 기기들 간의 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최초로 컴퓨터 통신화된 방식이다. 시리얼통신은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생동하는 분야이고, 신뢰와 정확도가 한층 살갑게 와닿는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IT 인프라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적극적인 활발한 통신 이용자를 만나 시스템베이스는 짧은 시기에 실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왔다.

시리얼통신은 모드버스(Modbus)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주로 고가의 모드버스 전용 장비에 들어가는 Modbus TCP Master 기능을 SG-2 Series에 추가하면서 SG-2 Series는 Modbus TCP Slave RTU/ASCII 모드와 Mod

bus TCP Master RTU/Slave 모드로 Modbus TCP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고, 저렴한 가격으로 Modbus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 홈페이지를 접속하니 쇼핑몰이 눈에 들어온다.

반응은 어떤지?

쇼핑몰에는 당사의 판매 제품이 올라가 있고, 품질 좋은 모듈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상품군을 지속적으로 늘려 직접 수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쇼핑몰은 2013년 가을부터 개설하여 운영해왔으며, 쇼핑몰 고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 분 한 분의 고객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국내 포털 사이트에 제품 키워드를 검색하면 당사 쇼핑몰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귀사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며,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빠른 A/S와 기술 지원(Technical Support)에서 나온다. 해외 제품의 경우에는 A/S나 기술 지원이 바로 되지 않는데 비해, 시스템베이스는 자체 개발하고 언제든지 기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베이스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다.

기술 지원은 단순히 물건을 팔고, 제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는 제품뿐 아니라 경쟁사의 제품 불량 원인을 철저히 찾아내고 밝혀내는 차별화된 기술 지원이 강점이다.

디지털 마케팅에 힘쓰고 있으며, 10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IoT 사물인터넷국제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 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과제가 있다면?

또 IoT 시대에는 어떤 인재가 적합하다고 보나?

시스템베이스는 시리얼통신 전문 회사에서 현재는 IoT 전문회사로 발전해 가고 있다.

시리얼통신은 무선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트렌드에 맞게 IoT 관련 제품들도 내놓을 예정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물건을 기계가 아닌 사람이 만든다'는 고정관념부터 없애자. 어느 시점에 가면 유선은 박물관에 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인재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보다는, 지식 수준이 낮아도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지력, 성실도, 충성심, 조직 적응력이며, 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시스템베이스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IoT 전문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비전, 사명, 가치관을 말해 달라?

당사는 '정예화/지식화/세계화'를 경영방침으로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은 첫째, 세계 최고가 되자(비전), 둘째, 기술개발로 봉사하자(사명), 셋째,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자(가치관)를 공유하고 그 목표를 실천해 나간다.

전 직원들이 일을 하거나 고객을 대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고객만족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 최고가 되려면 직원들이 신바람 나야 한다.



응접실엔 김명현 대표가 틈틈이 모은 수석이 준비하다. 커피 한 잔에 담은 수석의 세계! 참 운치있고 오묘한 느낌을 주네요.